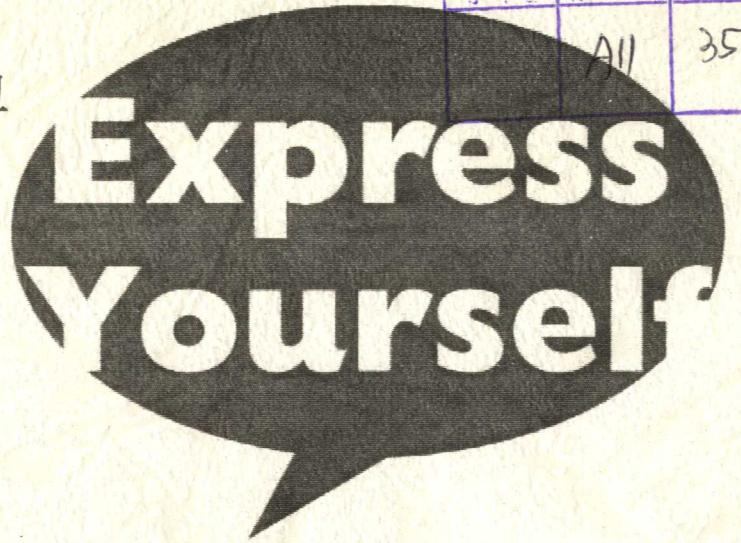


'97 동인협 여름 인권학교 일정표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07:00			
08:00		11. 깨어나십시오~	24. 빨랑 일어나서 씻어요~
09:00		12. 아침먹어~	25. 밥 먹어유~
10:00		13. 체육대회 (운동장)	26. 조별활동 (숙소)
11:00		14. 휴식	27. 방학식! 방학진짜 길지?
12:00		15. 분임토론	28. 출발 가자! 집으로!!
13:00		16. 야 점심이당~	
14:00	1. 야~ 도착이다~ (대강당)	17. 자유시간 시트콤상영 (대강당) 반순결식 (소강당)	
15:00	2. O.T. (대강당)	수영도 할 수 있음	
16:00	3. 강의 (대강당) 거기! 줄지마!	18. 조별활동 (숙소)	
17:00	4. 조별활동 (숙소) 인생을 망쳐보자!!	19. 밥이당~	
18:00	5. 밥이다~ (식당)	20. 대토론회 (대강당) 나도 한마디!!!	
19:00	6. 조별활동 (숙소) 이럴땐 어떻게 하지?	21. 휴식	
20:00	7. 입교식 및 발표시간 (대강당)	22. 노가바대회 / 연극공연 (대강당)	
21:00	8. 휴식시간 휴~ 좀 쉬자		
22:00	9. 분임토론 또 조냐?	23. 불놀이 (어머 뜨거~)	
00:00	10. 친교의 시간(휴게실)		
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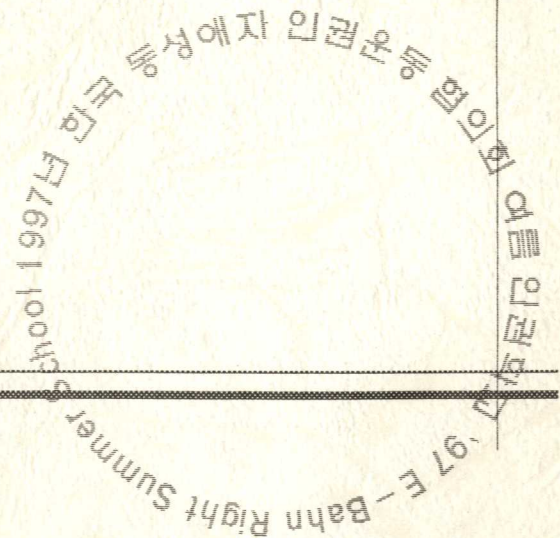
동인협 여름인권학교

'97



이제부터는 세상이 바뀌었다

생활안내, 행사장 구조도	2-3
프로그램 안내	4-5
강의 안내	6
분임토론	7-13
대토론회	14-15
활동가 설문지 발췌	16-22



이건 꼭!
지켜주세요~



1. 시간을 꼭 엄수하자구요~

밤에 잘 때 일찍 자고 아침 기상, 식사시간은 꼭 지킵니다.
각 프로그램 때는 꼭 시간에 맞추어 모입니다.

2. 조장을 중심으로 잘 움직이자구요~

자유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기조와 함께 행동하도록 합니다.
모든 일은 조장과 함께 상의합니다.

3. 본부석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본부석에는 구급약품 등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 사고 등 일이 생겼을 때는 본부석으로 달려오세요.

4. 개인행동하면 미워요~

대열에서 크게 벗어나서 행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중에 따로 놀거나 지방방송을 틀지 않습니다.

5. 음식을 남기면 벼락맞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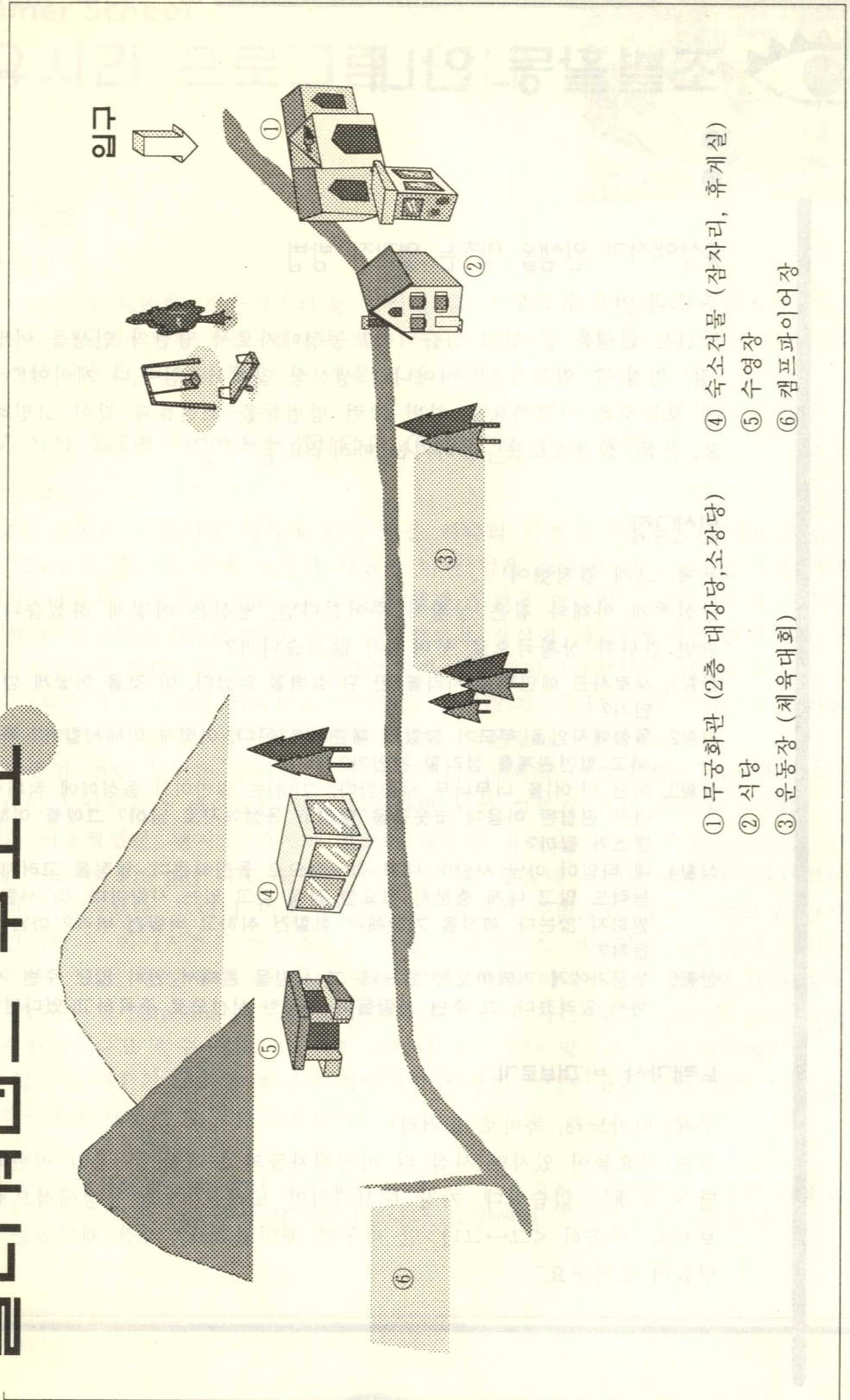
음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기지 않습니다.
(먹성 좋은 옆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식사시간에는 떡볶이만큼만 음식을 받도록 합니다. (많으면 떨어달라고
합니다.)

6.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구요~

행사 진행중에는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제공되는 술 이외의 술반입을 금합니다)

도구점도
플라워랜드





조별활동 안내

동성애자가 인생을 망치는 열가지 방법

부제: 내 인생 돌리도 -.-;

당신은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로서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망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생신상 앞에서 "엄마, 나 게이야!"하고 선언해 보는것은 어떨까요? 한번 그런 방법들을 조원들과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물론, 실행으로는 옮기지는 마시구요~ ^^

인생극장

부제: 그래 결정했어!

당신에게 아래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한번 간단한 상황극으로 꾸며보지 않겠습니까?

- 상황1. 새로사귄 애인과 잠자리를 한 뒤 질병을 얻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가?
- 상황2. 동성애자임을 부모가 알았고 패륜아로 본다. 어떻게 이해시킬까? 독립을 선언하고 혈연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 상황3. 어떤 남(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녀)는 일반이고 동성애에 적대적이다. 그녀의 편협된 마음에 코웃음을 날리고 동성애자로 남아? 그애를 이해시켜? 트랜스가 될까?
- 상황4. 내 타입이 아닌 사람이 내게 적극적으로 돌진해온다. 열정을 고려치 않는다면 능력도 많고 내게 충분히 필요한 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정은 원하지 않는다. 애정을 가장해서 취할건 취하고 버릴건 버려? 아님 완전히 등 돌려?
- 상황5. 누군가에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원치 않던 주변 사람들에게 까지 알려졌다. 그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다면?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부제: 이반노래, 똑바로 불러라!

많은 가요들이 있지만 사실 다 이성애자들의 노래일 뿐 우리 이반의 정서를 담은 노래는 없습니다. 가장 이성애적인 노래를 가장 동성애적으로 바꾸어 보세요. 단순히 <그↔그녀>만 바꾸면 재미없겠죠? 가장 재미있는 노래말을 만들어 보자구요~

자유시간 프로그램 안내



반순결 서약식

장소: 휴게실

분임토론 시간에 토론한 '반순결주의'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의식입니다. 반순결주의의 뜻에 동참할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반순결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쪽의 분임토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TV 사상 최초의 이반시트콤 "ELLEN" (자유시간중 2회 상영)

장소: 대강당

1997년 4월 30일은 미국 TV 역사에 필히 남을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TV Sit Com의 하나인 "Ellen"의 주인공 엘렌 모건이 자신이 이반임을 깨닫게 되고 친구들에게 커밍아웃 했다. 더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주인공 엘렌 모건을 연기하는 코미디언겸 배우인 엘렌 드제너러스(Ellen Degeneres) 역시 공식적으로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역사적인 'Ellen'의 4월30일 에피소드가 방송되기 1달전부터 미국내에서는 과연 미국 사회가 TV의 게이 캐릭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 아닌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면서 엘렌의 성적체성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중략-

쇼의 주인공인 엘렌 모건은 35세의 서점 주인이다. 35세의 독신녀(항상 바지만 입는), 그리고 더이상 남자들과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뭔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중략- 그 동안의 어정쩡했던, 웬지 알맹이가 없었던 태도를 버리고 자신이 사랑을 느끼게 된 수잔에게 "Susan, I'm gay"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보이던 환한 미소는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웠다. 드디어 미국 TV 역사상 이반이 주인공인 쇼가 처음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 1시간의 에피소드는 엘렌 드제너러스 개인적인 승리만이 아니라 미국내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 공동체의 승리이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게 쌓여 있는 그 커다란 벽 homophobia가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는 앞으로 두고 불일이지만 그동안 수 많았던 사회의 공격과 반대를 물리치고 당당히 커밍아웃한 엘렌 드제너러스는 대단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임에 틀림없다.

PS : 이 글은 미국에서 유학중인 조민씨의 글을 받아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민씨께서 "Ellen"을 녹화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조민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 E-Bahn Right Summer School
강의안내

페미니즘과 이반, 그리고 용어들

강의: 김지혜

이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할 때 여성들만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게이들은 레즈비언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이를 별 문제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사회의 동성애 억압의 원인이 이성애주의만으로 한정되어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동성애 억압은 가부장적 남성 중심주의와 이성애주의와의 상관관계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옛 속담에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썬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게이가 남성의 기득권을 즐기는 동안 비수는 자신의 가슴을 향하고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자리가 되길 바란다.

여성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절반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회의 동성애자와 함께, 그리고 또한 다르지 않게 성의 억압을 함께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이러한 의미로서 여성주의에 다가서야 한다. 여성은 동성애자들이 적극적으로 연대를 구해야 할 세력이며, 동성애자는 동성애 억압과 여성 억압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억압이라는 것, 즉 동성애자와 여성이 같은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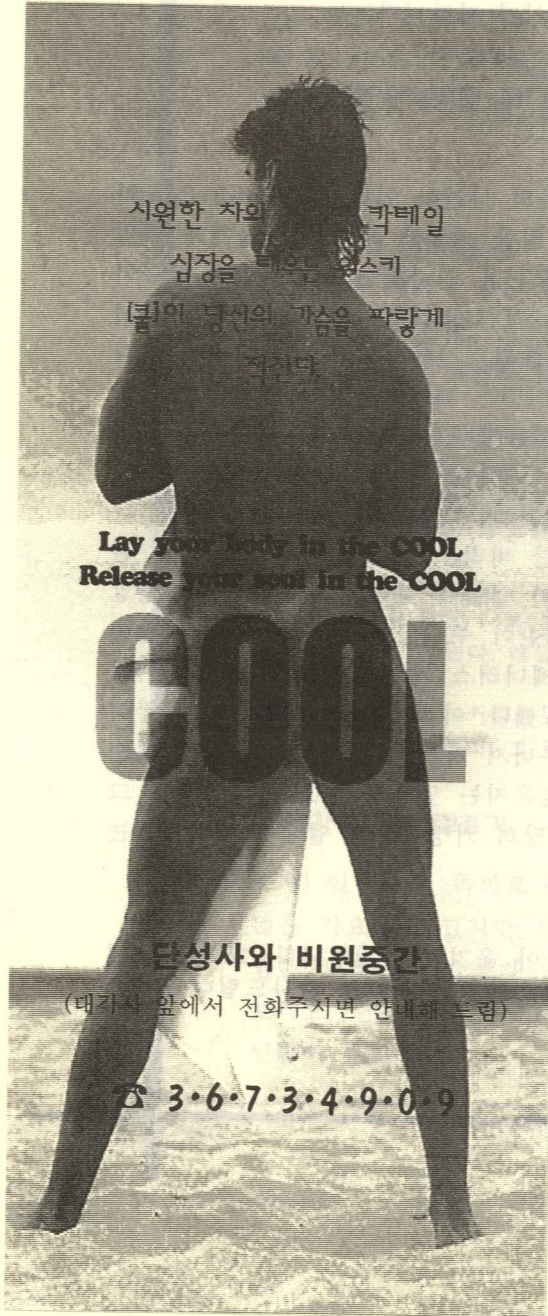
분임토론 개요

분임토론은 이번 여름 인권학교의 모토 (Express Yourself - 이반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에 맞는 8개의 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두 번의 토론 시간에 각각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실 수 있게 준비되었습니다.

각 주제들의 인원이 너무 많으면 토론진행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토론별 배정이 수강신청을 하신 것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제목	강사명	설명
1. 애들이 괴롭혀요 (이지메 당하는 게이와 여성의 상관관계)	김지혜	8 (Page)
2. 니엄마는 아시니? (커밍아웃)	전해성	8
3. 네 멋대로 해라! (반순걸 주의)	장민아	9
4. 나 늙으면 어떻게지? (동성애자 복지)	정누리	9-10
5. 이웃나라 이야기 서구 동성애 인권운동사	이정우	11
6.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 (대중매체에 대해서...)	정현수	12
7. 황진이가 수상하다!! (역사 속의 여성과 레즈비언)	변리나	12
8. 전혀 뜨겁지 않은 HOT SEX (원만한 성생활을 위한 가장 재미없는 토론)	양지용	12-13



분임토론 주제별 개요

이곳에서는 각 분임토론 주제들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수업을 선택하기 전에 한번 읽어 보시면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애들이 괴롭혀요 ~

(이지메 당하는 게이와 여성의 상관관계)

진행자: 김지혜

게이들은 때론 자신이 여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굳게 믿곤 한다. 물론 게이들은 여성들과 별다른 특별한 관계도 맺지 않고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적인 관계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게이들이 이 사회에서 '이지메'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그게 여성과 무슨 상관일까? 이번 토론은 게이들이 '이지메' 당하는 이유가 여성성이 비하되기 때문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성애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된 성역할의 강요가, 동성애자들에게는 먹혀들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성이 열등한 이 사회에서 게이들은 더욱 '이지메' 당하기 마련이다.

이 토론에서는 먼저 이 문제에서 시작하여 게이와 여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나가 고자 한다.

2. 니엄마는 아시니? (커밍아웃)

진행자: 전해성

- ▼커밍아웃에 대한 간단한 설명
-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얘기 풀어놓기
- ▼자신과 다른 경험 듣기
- ▼커밍아웃이 동성애자인 자신과 동성애자 커뮤니티, 그리고 동성애자 운동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생각하기.

커밍아웃이란 동성애자들이 한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긍정하는 자기 존재 확인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인식시키는 과정으로써, 동성애자 운동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커밍아웃은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이중에서도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행복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중심으로 커밍아웃은 나에게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한번 생각해 보자.

3. 네 멋대로 해라!

(반순결주의)

진행자: 장민아

우리에게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그냥 그러한, 원래 그러한 것들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성에 있어서 이러한 관념의 지배는 더욱 철저하며,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어떠한 배제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성에 있어서 '순결'이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가부장제 사회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지켜온 핵심적 이데올로기이며, 성적 순종의 제도이다. 이는 억압적 사회를 '아마도' 혼란에 빠뜨릴, 관념적 개

입이 배제된 자의적인 성의 표현과 관계 맺음들을 폐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새삼 이를 비판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적 억압의 제도에 기반하여 삶을 영위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생각으로 수용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이반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순결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인 자신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비하하거나, 자신과 타인을,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타인을, 구분짓거나 분리시킬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순결 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개인적 측면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만은 아니다. 그것은 이성애를 그 주요한 요소를 삼고 있는 가부장제의 억압을 없애기 위한 도전이다. 따라서 성적 순종의 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의 '반순결주의'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며, 이 도전은 중국에는 여성과 성적 소수자에 대해 억압적인 이 사회에 대한 반기로써 평가받을 것이다.



4. 나 늙으면 어떻게 하지?

(동성애자의 노후와 복지)

진행자: 정누리

결혼하지 않고 한국사회에서 살기란 참 힘들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혼은 선택이지만, 사회구조는 결혼을 의무로 강요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 부계혈통에 대한 집착이 유달리 강한 사회에서 남성은 代를 이어야만 하는 존재이고 이를 위해 결혼은 필수다. 남녀의 역할구분이 구조화돼있는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들에겐 이른바 여성의 내조가 뒷받침 돼야만 가능한 임무가 부여되곤 한

다.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이다보니, 남들 다하는 결혼을 안 하면 따돌림 받기 일쑤다. 이혼경력도 사회생활의 흠집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나이트 미혼자는 승진이나 社交에서 불이익을 자주 당한다. 여성의 경우는 더 열악하다. 주위의 따가운 눈총과 가족과의 불화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기 쉽다. 아직까지 남녀임금차별이 엄격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편에 의지하지 않고 여성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여성의 경우는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계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1990년 현재 한국의 독신자수는 약 17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독신자수가 5천5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혼자와 미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치평가를 내릴 수 없다.

독신자의 스테레오 타입이란 하나같이 쓸쓸하고 비참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면서도 결혼할 수도 없는 문제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은 달라 보인다. 우선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참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접어들 수도 있겠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면접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혼자와 미혼자의 라이프스타일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치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사회도 점차 근대화, 서구화되면서 결혼강요와 가족중심의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다. 점차 다양성을 인정하고公私를 구분하는 편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한편으로 결혼하지 않을 경우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볼 단계다. 그럴 경우 새로운 불평등이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특정한 가

족형태만을 지원하고 동성애가족을 비롯한 여타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가족으로서의 인정을 불허하고, 지원혜택을 제외시키는 복지정책, 극히 제한된 범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입양을 허용하는 입양정책에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창조적으로 실험하는 전위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상상력과 사고의 단초들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기를 기대해 본다.

5. 이웃나라 이야기!

(서구 이반운동 이야기)

진행자: 이정우

서구 이반운동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서너 가지 교훈에 대하여...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이반운동의 역사가 짧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구의 게이 레즈비언 운동 혹은 퀴어운동의 역사에서 우리의 지침을 찾는 수가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쉬운 방법인 만큼 무분별한 차용과 수입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좋지 못한 선례를 보인 사람들 중의 한 명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니 면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인권학교의 분임토의에서 만큼은 왜 우리가 서구 이반운동의 역사를 따져 보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원칙과 목표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역사는 오늘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반성의 거울입니다. 특 터 놓고 얘기해서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암기해서 무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살피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그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뚫고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교훈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조금은 지루하시겠지만 본 토론의 자리에서는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이야기 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이 게이 레즈비언 정치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활동하는 사람

들도 부족한 마당에 무리한 요구일지는 모르지만, '아는 만큼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진행의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가 간략하게 서구 이반운동사에 대해 개요를 발제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 쟁점 1. 동성애자의 탄생과 그를 둘러싼 동성애자 운동의 흐름 - 동성애자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 쟁점 2. AIDS 정치학의 시대 - 한국의 남성동성애자들은 AIDS를 타자의 질병으로 외면할 것인가?
- 쟁점 3. 게이 레즈비언 문화상품의 시대와 토크니즘 - 우리는 우리의 가시성과 목소리를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 쟁점 4. 우리의 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들의 미래 - 내가 회비를 안내도, 내가 커밍아웃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토론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따위의 요식행위의 미사여구는 우리 모두 생략하고, 각자의 생각들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유익한 토론의 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함은 잃지 말아야겠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분투를 기대하며.....



6.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

(대중매체)

진행자 : 정현수(마음003)

투쟁이라는 말이 흔히 노동조합에서나 아니면 학생운동에서 들어왔던 말이어서 어색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맨처음 동성애라는 것을 들었던 것도, 나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도 대중매체가 아닌가?

그러한 대중매체 속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퇴폐적이고 변태적 성행위자이며 AIDS의 주범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었나?

길을 가며 동성애에 대해 아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안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안다고 하는 동성연애자, 성전환자... 어떤 논점도 관점도 없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해들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굳이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도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타겟을 대중매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동성애는 잘못된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동성애의 모습을 얼마나 왜곡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7. 황진이가 수상하다!

(역사속의 여성과 레즈비언)

진행자: 번리나

여자들을 찾아가는 여행

책에 기록된 것 말고 그들의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사임당을 만나러 강릉 북평 마을로, 파주 지운산으로, 난설현

을 만나서 강릉 초당동, 황구 지월리로, 명성황후를 만나러 여주로 향하자!!
송도에 있다는 황진이의 무덤은 통일된 후로 미루어야 하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성들은 왜 역사에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시대적 제약과 조건 속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 시대 여성관

“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남자가 할 일이다. 여자가 이에 힘쓰면 그 해로움이 끝없을 것이다.” (이익, 『성호사설』)
“부인은 조석과 한서(寒暑)에 따라 가족을 공양하고 제사와 손님들을 받들어야 하는 일이 있으니, 어느 겨를에 책을 대하여 풍송(諷誦)할 수 있으리요.” (이익)

8. 전혀 뜨겁지 않은 HOT SEX

(원만한 성생활을 위한 가장 재미없는 토론)

진행자: 양지용

성행위란 정의 내리기 힘들다. 성행위의 선을 긋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만 유효한 작업이다. 가장 대중적인 성행위에 대한 정의는 ‘오르가즘을 얻기 위한 행위’-여기서 말하는 오르가즘이란 ‘결정판’으로서의 오르가즘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순간 순간의 만족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다-이다. 애무, 구순성교, 또는 항문성교 등 무엇이든 그 범주에 들 수 있다. 성행위의 범주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행위에 대한 관념적 범주 설정이다) 만족스러운 성행위의 방식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결정된다. 쾌감을 느끼는 부위가 개인에 따라 다르고 하고

'97 E-Bahn Right Summer School

싫어하는 성행위가 개인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테크닉’으로서의 성행위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족스러운 성행위란 각각의 관계들에 있어서-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불문하고-최대한의 즐거움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는 먼저 ‘모든 합의된 성행위는 좋은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지난 2월에 동인협 연대투쟁위원회와, LG 화재 해상보험 노조와의 토론회에서 한 노조원이 우리들과의 대화 중에서 자신이 몇 년 동안이나 고민해 왔던 문제를 털어 놓았다. 그것은 너무나 은밀한 문제였고, 따라서 그는 이 문제 때문에, 그는 몇 년을 고민해 왔고, 이는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물론 그의 고민은, 많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다 개방된 이들과의 교류 속에서 해결되었다. 그는 수줍게 우리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서 매우 기뻐했다. 단순한 털어놓음이 그토록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물론 우리는 이에 대해 더욱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커밍아웃을 할 때 그것은 매우 단순한 한마디이지만 우리가 그 한마디를 이야기할 때,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감정과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자신을 개방시킨다는 것은 선행이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배려이며, 또한 자신감을 갖기 위한 기반이다.

우리는 ‘우아함’을 넘어서, 지독한 ‘순결’을 넘어서, 성적인 부분에서의 ‘폐쇄’를 넘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넘어서, 또하나의 커밍아웃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욕망을 발가벗기우는 것이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떠한 것을 즐거워하고 어떠한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보다 만족스러운 성행위를 위해 제안하는 것이다.

몸을 만날 수 있다
노래를 만날 수 있다
그(녀)의 눈길을 만날 수 있다

나이팅게일
오전
피카디리

나이팅게일
tel: 765-2898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대토론회

주제: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사회: 양지용

발제: 정현수

방식: 발제 후 자유 발언 및 토론

인권학 교에 참가하신 모든 분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내용은 주제에 부합되는 내용, 또는 근접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발언하실 분은 사전에 발언요지 등을 나누어 드린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신 후, 행사진행요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이유로 모든 발언을 하실 수는 없다는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 발제문

초동회 발족 이후 지금까지의 수년 동안 실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그 의미의 좋고 나쁨을 떠나,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다수의 동성애자 단체들이 생겨났고, 각 단체들 또한, 급속한 양적인 팽창을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담론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며, 일부에서는, 피상적이지만, 동성애에 대한 인정, 내지는 지지의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전제로, 개인들의 커밍아웃이 아닌, 조직적이고 의식적인 집단적 커밍아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란 것은 동성애자 인권운동 전반에 대한, 모든 원칙적, 방법적인 고민들입니다.

그동안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막연한 친밀감을 가졌던 동성애자 대중이 분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이제 레즈비언-게이의 분리를 비롯해, 각 부류들의 특성에 따른 분화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의 다름으로 인한 소외가 분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게이-레즈비언의 분리는 고정화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억압을 없애기 위한 싸움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힘은 너무나 작고도 약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모든 일을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함께함이란 단순한 물리적인 합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 목표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각 동성애자 단체들은 개별 사안들에 대한 국지적인 연대만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큰 힘을 내기 위해, 여성에 대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리



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 있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연대는 각 부류의 동성애자들끼리의 연대 뿐만이 아니라,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한 가능한 모든 세력들과의 연대, 여성운동, 노동운동 등의 운동세력들과의 개별 사안에 대한, 또는 전체적인 연대까지를 의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적으로 많은 동성애자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비록 뚜렷한 특징은 없지만 자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양지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행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숨어있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선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한 바로 이점에 있습니다. 일부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가 정치적 성향이나, 목표의 차이에 근거하지 않은, 말하자면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단체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는 지속적인 양적 팽창 이외의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각 동성애자 단체들의 명백한 목표의 표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동성애자들의 집합체가 아닌 '조직'으로서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각 단체들의 정치적 색깔을 확실히 함으로써, 개별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고, 보다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어 냄으로써, 동성애자의 권력을 위한 싸움을 보다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요컨대, 각 동성애자 단체들의 명확한 목적의 표명과 그에 따른 조직의 정비 또는 재구성과,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동성애자의 정치조직의 결성 등에 대한 고민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비롯한 더욱 많은 문제들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토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약합니다.-

'97 E-Bahn Right Summer School 설문지 답변



동성애자 인권운동 활동가에게 던지는 12가지 질문

동인협 여름인권학교 준비위원회는 위와 같은 열두가지의 질문을 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성애자 인권운동 활동가에게 던졌다. 다음은 질문에 응한 10명의 답변을 나름대로 종합한 것이다.

답변에 응한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지면관계상 이 자료집에 답변 전문을 게재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활동가에게 던지는 12가지 질문

1. 당신은 커밍아웃한 활동가이거나 동성애자 모임의 대표로서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친교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우리가 이번 설문 조사를 위해 정의한 '동성애자 인권운동 활동가'의 정의이다)이다. 우리는 이에 우선 감사를 표한다. 당신은 무슨 계기와 어떤 심정으로 이런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는가.

2. 인권운동 활동가와 일반 동성애자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 괴리감은 도대체 무엇이고 당신이 생각하는 타개책은 무엇인가.

* 인간의 의식은 항상 새로운 것에 부딪혀 깨어지고 그 깨짐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갈 때에만 진보한다고 믿는다. '무엇이든 처음은 항상 두렵고 불안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막상 그 두려움의 실체에 부딪히고 보면 사실 별 것 아닌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 활동가와 일반 동성애자 사이의 괴리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식의 편차에서 오는 겉이라 생각된다. -윤석민

*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오늘 마련한 질문내용이 지나치게 게이 중심적이어서 불만이 크다. 질문 하나하나를 보면 게이커뮤니티와 게이모임을 중심으로 질문내용들이 짜여져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차라리 사우나나 찜질 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 문제가 아니다) 이번의 질문내용 역시 그러하다. 서동진, 이정우로 대표되는 활동가와 게이커뮤니티(친구사이, 통신모임, 게이 빠를 이용하고 있는 게이 등등)에 있는 사람들과의 괴리감을 지적하고 싶은 모양인데, 나는 순전히 레즈비언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 지금의 한국 레즈비언 커뮤니티에는 활동가가 따로 없다. 활동가가 따로 없다는 것이 불행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초창기 한국 레즈비언 운동 흐름으로 봐서는 그리 불행한 일만도 아니다. 그러나 질문서 첫부분에 정의한 활동가가 동성애자 모임의 대표로서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친교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라면 끼리끼리를 중심으로 몇몇의 활동가를 꼽을 수 있겠다. 현재의 한국 레즈비언 운동을 활동가를 꼽을 수 있다. 현재의 한국 레즈비언 운동은 활동가 중심의 정치운동, 사회운동이기보다 레즈비언 커뮤니티 형성과 대중운동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레즈비언 대중들과 큰 괴리감은 없는 듯 보인다. 활동가와 일반 레즈비언

사이의 괴리감이란 대체적으로 활동의 정치적인 내용, 그 정치성을 바탕으로 한 활동의 방향과 전략들에 대한 입장차이나 관점 차이에 의해 많은 괴리감을 유발하는데 솔직히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는 괴리감을 유발할만한 어떤 내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해솔

3. 한국사회의 의식적인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시작을 '94년 초동회 결성'으로 규정하기로 하자. 그 이후 펼쳐진 동성애자 단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문제는 우리 사회의 동성애 억압의 원인진단과 그것의 극복을 위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활동의 부재이다. 구체적으로 동성애자 해방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대한 중, 장기적인 비전제시와 투쟁방향성, 그것의 현실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과 인식이 부족했었다. 다시 말하자면 동성애에 대한 억압과 편견의 본질과 투쟁 대상이라는 큰 흐름잡기에 실패했다고 본다.

몇몇 '명망가' 중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주먹구구식의 활동, 길거리 싸구려 좌관 벌이기식의 선전, 알맹이는 없고 거품만 무성했던 동성애 담론 등으로 인해 아래로부터 동성애 대중을 스스로 움직이도록 선전하고 선동하는 데에는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윤석민

* 현재 동성애자 단체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인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끼리끼리'와 '친구사이'를 비롯하여 각각의 지방이나 관심면에 따른 모임들이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화는 동성애자 문화발전과 운동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한가지 우려하는 것은 동성애 운동을 획일적인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동성애자 안에서도 각기 다양한 특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다 인권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면 무엇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동성애 커뮤니티 안에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우선은 게이와 레즈비언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4. 서구 동성애자 인권운동에서 커밍아웃은 핵심 개념이자 활동의 기반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당분간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층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강하다. 커밍아웃은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에서 어떤 비중인가.

* 커밍아웃은 아주 상황적이고 기술적인 실천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운동의 실천, 기반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선택, 자유, 권리라는 개인성에 대한 공유가 전제될 때 성립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집단성과 획일성, 동질성을 강요하는 한국상황에서 커밍아웃 전략이 얻어낼 수 있는 효과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은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의식이 많은 변화를 거치는 역사적 경험위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동성애와 동성애자, 커밍아웃의 사회적 의미가 촉발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깊은 호모포비아를 차치하고라도 상상력조차 가정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에서('호모'는 외국문화거나, 여장 남자라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레즈비언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커밍아웃 전략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강화시키고 대사

회적인 싸움을 걸고 제기하는 것들이 앞으로 커밍아웃 운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와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혜

* COMING OUT이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가지고 있는 비중
우리의 정체성을 죄스럽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성애자들에 앞에서 떳떳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있어서 COMING OUT은 어느 국가나 사회를 막론하고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들이 엄연히 가져야 할 기본자세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얼굴을 감추려 드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위선이다. COMING OUT을 하면 당장 먹고살 길이 막혀버릴것만 같은 한국의 억압적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다수의 운동가들이 용기를 내어 먼저 COMING OUT을 한 후 'COMING OUT을 해도 굶어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사례를 실제로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5. 동성애자 인권운동(레즈비언운동, 게이운동, 트랜스젠더운동, 여성운동 등) 내에도 분리주의적이라는 생각들이 있다. 활동가로서 분리운동의 입장은.

* 어떠한 주체도 동일한 이해, 동질적 주체일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동질적인 주체를 상정할 수는 없죠. 동성애자 역시 계급과 인종과 성별 등 다양한 권력 변수가 교차하는 지배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인권운동 사이에서의 다양한 이해의 충돌과 해결 역시 사회적 맥락과 운동내의 과정적 상황에 유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관념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활동이 진행되는가에 따라 각 주체들은 분명히 과감하게 분리주의적 입장을 취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소수자의 정치학을 의미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혜

* 모두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다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하지만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함께 행동해야 할 듯하다. - 김상백

* 분명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운동의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렇게 서로 상충되어 반대되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운동방향을 찾아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물론 입장이 똑같고 함께 해야할 일에 대해서는 함께 해 나아가야 하고..

뭐 어떻게 잘 절충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난 지금의 모습이 그다지 분리주의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 김민영

*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레즈비언과 게이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정치적 입장은 다르다. 때문에 그 차이를 기반으로 운동의 방향과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그 차이를 무시하고 동성애자라는 포괄적 개념만으로 뭉뚱그려 인식하고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 안에서의 권력관계나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생각이며 효과도 없다. 각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기에 맞게 따로따로

운동하면서 공동의 목소리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힘을 합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 전해성

6. 현재 한국에는 동성애자 단체가 23개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직적 차원의 활동이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각 단체들 간의 관계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 대학생, 통신, 친구사이, 끼리끼리. 지방 모임 등 단체의 수는 많지만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공유 또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연대한다는 것은 그저 모임을 갖거나 수적으로 집결하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고 무엇을 같이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지난한 토론과 싸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각 단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며 외부적 행사, 대사회적 투쟁 못지 않게 한국사회의 동성애자의 상황과 현실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필요한 운동의 방식과 목적에 대한 내부적인 토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혜

* 앞으로 더욱더 많은 동성애자 단체들이 생겨날 전망이다. 동성애자들의 다양한 관심과 특색에 따라 모임이 분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모든 단체가 인권운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필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관심분야에서 최대한 만족과 발전을 하는 일이다. 각자 목표에 따라 모임을 발전시키면서 또한 연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단체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대사회적인 싸움에서는 서로 뭉쳐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영역에서의 활동이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전해성

7. 동성애자 유흥산업(핑크산업)과 동성애자 인권운동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당신은 보고 있는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산업 혹은 상품은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핑크 산업이 대두된다는 것은 그만큼 물리적인 수적인 면에서 혹은 문화전반에 이미지 상품으로 충분히 교환가치가 있다는 것이겠죠. 무엇이든 자본으로 환산해야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자연스런 생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동성애자가 소비자, 소구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동성애 인권운동의 결과나 효과와 무관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동성애자가 자신의 쾌락을 지불하면서 저항적 주체가 아니라 유쾌한 소비자로 남는다면 인권운동과의 관련성은 더욱더 멀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성애주의적 자본주의사회가 동성애자들의 저항적 에너지를 흡수하고 개량화시키는 책략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 인권운동의 목적이나 타협점. 종착지가 아니라 운동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권리, 즐거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핑크 산업이 어떠한 동성애자 하위문화를 만들어내는가 혹은 대기업적인 자본의 유입, 회수, 용도가 무엇인가까지 들어간다면 정말 복잡한 문제이겠죠. 경계를 뚫을 수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시선, 혐의를 둘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김지혜

8. 동성애자 공동체내에서도 기존 성역할의 고정관념은 남아 있다. 지금은 어떠한 고정관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이것은 두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에서의 남성 중심주의로서 레즈비언을 부차화하거나 열등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반 중의 이반)과 게이 커플내에서 혹은 레즈비언 커플 사이에서 빚어지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권력 불평등을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게이, 레즈비언 양자 모두에게 여성성은 열등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이러한 구분이 '이성애적 남성상'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화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동성애자 커뮤니티 안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어찌 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해, 해결노력이 부족했다는 뜻일 겁니다. 각 단체별로 혹은 동인협 차원에서 이성애주의와 성차별주의(남성중심주의)가 얼마나 상호강화시키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가에 대한 세미나, 강의, 포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동성애자의 억압을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억압을 묵인하는 자, 노동자의 억압을 이야기하면서 인종차별주의를 묵인하는 자, 제국주의의 억압을 이야기 하면서 장애인 억압을 묵인하는 자는 절대로 자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없는 또다른 억압자, 지배자들입니다. -김지혜

* 게이들이 자발적으로 어느정도 자신의 성역할을 나누는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또하나의 [고정관념]이 되는 것을 조심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반 속에서 스스로 성역할을 나누는 모습들을 별로 찬성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떤 영향을 받았던 이반들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의 일부라면 어쨌든 먼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그 문화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 김민영

9.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40-50대의 동성애자의 모습은 어떤 것 같나. 결혼제도에서 벗어난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노후는 어떠한가 하는지 당신의 창조력을 표현해 달라.

* 먼저 질문자체에 다분히 이성애 중심의 가족적 편향이 묻어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우선 결혼과 노후안정과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만약 있다고 믿는다면 자본주의사회의 안락한 가정이라는 환상에 효과적으로 기만당하고 있을 뿐이다.

동성애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열려있다. 획일화된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은 헤테로 대중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윤석민

* 현재로서는 암담할 뿐이다. 제대로 얘기가 되려면 우리는 결혼제도 합법화등으로 싸움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테고 일단 법과 상관없이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이 이성애사회에서와 같은 결혼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에 대한 신뢰로서 맺는 결혼말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성애 사회에서 평생을 두고 하는 사랑에 대한 사고가 널리 퍼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냄비사랑만을 즐기

다간 늙으면 암담하고 비참한 노후만 남게 될 것이다. 아니면 뒤늦게나마 이성애사회로 편입해 들어가겠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랑에 대한 사고의 확산이 필요하고 우리내에서라도 결혼을 하고 동거가 아닌 부부생활을 하고.. 노후를 같이 준비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혀야 한다. 당장 이루어지지도 않을 결혼합법화에만 매달려 그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동성애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은 버려야 한다. 요즘 '담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과연 동성애자내부의 담론은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가.. 이성애자들과의 담론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박상희

10. 단기적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펼쳐야 할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3가지 정도만 나열해 달라.

* 궁극적으로 동성애자 권력만이 동성애자 해방을 가능케 한다고 본다.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동성애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지원, 그것으로 부터 힘을 축적하는 작업이 필요 -윤석민

* 정규적 자금조달, 합법적 단체자격획득 -장진석

* 에이즈예방 사업과 올바른 성의식 정립
유해환경 척결 -사우나/찜질방/공공장소등 - 김상백

11. 사우나나 찜질방에 대해 당신의 입장은 어떠한가. 사우나 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도덕적 비난이나, 동성애자 공동체 내의 비판의견에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겠나.

* 사우나나 찜질방이 동성애자들을 '변태'나 '성도착증'으로 매도하기에 충분한 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다하여 일부 동성애자들도 그 문화를 지극히도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안다. 그것은 곧 호모포비아의 다른 아니며 동성애자들이 욕먹고 있으니 우리가 알아서 조심하자는 말밖에 안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내부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형태의 성을 표출하고 교환하는 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는 폐쇄적인 형태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폐쇄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우나문화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도덕적 비난의 실체를 따져들고 이성애자들의 이중적인 성문화를 오히려 고발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곧 동성애자 탄압의 다른 아니기 때문에. -이해솔

* 찬성도 비판도 하지 않겠다. 이는 각개인의 자유선택권이다. 어떠한 인간에게도 각개인의 타락(?) 혹은 즐기는 권리는 있다고 본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 먼저 동성애자 스스로 그러한 유해환경을 척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에이즈의 온상인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있으면 가게 되는게 사람의 심리 아닌가. 있으면 그곳 환경이 불결하든 아니든 가게 마련이다. 적어도 사람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에 힘써야 하고 최소한 콘돔 판매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실 그러한 장소에 대한 유해무해 논란이 많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다시 가지 않고는 힘든곳들이 그러한 곳이다. 그러다 보면 한명의 애인

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고 결국 문란한 성생활로 자신의 사생활을 망치기 일수이다. 일반인들의 도덕적 비난을 떠나서 개인 동성애자들의 생활을 위해 척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12. [가상상황] 보수적인 한국에이즈연맹에서 지금까지의 한국 HIV 양성 반응자 중의 22%가 동성애자이고, 올해 상반기의 경우 36%가 동성애자라는 통계를 들이대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특별한 예방활동 및 검진활동을 주장하고 나섰다. AIDS의 사회성과 대처방안은.

■ 명언록

혼자 당당해진다고 당당해질 수 없는 것이 이곳 동성애자의 세계이다. 친목이라는 것 자체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것이 '인권'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직은 확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박상희

(기존의 고정된 성역할을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장은 무의미하다. 지금과 같이 의식수준이 머물러 있다면 그때는 (노년에는) 아주 초라하고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불쌍한 노인네에 불과하다.-서지철

그래도 돈주고 사고 파는 것보다는 훨씬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니까.-김민영

궁극적으로 동성애자 권력만이 동성애자의 해방을 가능케 한다고 본다. 동성애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열려 있다. -동성애운동의 강점은 기존의 가부장적 이성애주의에 비해 보다 자유롭고 보다 평등한 성역할의 가능성에 있다. 다수의 도덕적, 종교적 잣대가 역사를 진보시킨 예는 없었다.-윤석민

개인적으로 친구사이와 일을 해본 경험을 통해 미루어 보아 레즈비언과 게이가 무엇이 같은지에 대해 자꾸 의구심을 갖는다. (동성애자 노후 복지는) 법적인 인정과, 혜택이 없는 한 언제나 요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이해솔

이성애 사회로부터 차별받았다면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덮어두고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개인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던 그것을 억압해서는 안된다.-장진석

문화의 성숙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김기현

동성애자들의 다양한 관심과 특색에 따라 모임이 분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전해성

동성애적 행위가 바로 저항적 정체성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김지혜

MEMO

MEMO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사랑은 못보다 다름다워

■ 명언록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음~

지독한 외로움에 찢찢매본 사람은 알게되지 음 알게 되지~
아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샌가 반짝이는 꽃씨를 심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질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랑
누가 뭐래도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리들~

노래 한곡~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꽃다지
곡:안치환
글: 정지원

강물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되지
음~ 알게 되지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음~

지독한 외로움에 찢찢매본 사람은 알게되지 음 알게 되지~
아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샌가 반짝이는 꽃씨를 심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질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랑
누가 뭐래도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리들~